

<금당별곡>의 작품 세계와 의식 지향

김 용 찬*

차 례

1. 머리말
2. <금당별곡>의 원문 탐색과 작품 세계
3. 작자의 삶과 문인으로서의 의식 지향
4. 맺음말

| 국문초록 |

가사 갈래에서 여행의 여정과 작자의 감상을 중심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기행가사라고 한다. 초기에는 주로 관리들이 부임하면서 임지로 향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나, 점차 자유로운 처지의 개인이 여행의 과정을 기록한 작품들도 창작되기 시작했다. <금당별곡>은 작자가 고향 근처의 금당도와 만화도라는 섬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그 여정과 감상을 토대로 창작한 기행가사이다. 작품을 소개한 초기 연구에서 작자 소개에 착오가 있었지만, 작자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어 위세직이 창작한 가사임이 확인되었다. 이후 작품의 성격을 기행가사라고 밝힌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기행가사로서 <금당별곡>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지만, 이 작품을 다룬 연구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작품이 수록된 문헌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2차 자료를 통해 작품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일단 작품이 수록된 『위문가첩』을 비롯한 2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작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원문 탐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의 원문을 상세히 다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금당별곡>의 작품 세계를 풍부하게 논할 수 있었다.

<금당별곡>의 작자인 위세직의 생애나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문집 등 관련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죽당유고』에 위세직의 한시와 관련된 위세보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위세직이 창작한 한시 원문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위세보의 작품을 통해 그의 문인 활동과 작가 의식을 검출할 수 있는 단서로 삼았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먼저 『위문가첩』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원문 탐색과 작품 세계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위세보의 한시 작품들을 분석하여, <금당별곡> 작가로서 위세직의 작가 의식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소개하였다.

핵심어 : 금당별곡, 위세직, 기행가사, 금당도, 만화도, 삼죽당유고 등.

*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머리말

여행은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특별한 장소로 가서 낯설고 새로운 체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던 시절에는, 아무래도 널리 알려진 명승지를 목적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명승지로 알려진 장소에 관한 여행 관련 기록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대개 작자가 체험한 내용과 감상 등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먼저 여행을 다녀온 이가 남긴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같은 장소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여행의 일정이나 계획을 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여행의 여정과 더불어 여행자의 감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관습이 일찍부터 존재했으며, 문학에서는 이러한 양식을 일컬어 기행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행문은 당사자에게는 여행의 경험을 언제든지 되돌아보고 추억으로 반추할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는 낯선 곳에 대한 여행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상상으로나마 대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행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던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일단 여행을 다녀오면 그 기록을 적극적으로 남겼으며, 그렇게 기록된 여행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널리 향유될 수 있었다. 특별한 기회를 얻어 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그 경험을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특정 지역으로 부임을 하는 관리들이나 장사를 하는 상인이 아니라면, 농업을 기반 산업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던 조선시대의 일반 사람들에게 여행은 쉽지 않은 기회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여행은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되었고, 일단 여행에 나서면 그 여정과 감상을 산문이나 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 남기기도 했다. 일단 작자는 여행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자 하나 그러한 방식이 쉽지 않기에, 대체로 여행 과정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감상에 초점을 맞춰 기행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시대의 가사 갈래에서 여행의 여정과 작자의 감상을 덧붙여 기록한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을 ‘기행가사’로 분류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초기의 기행가사들은 주로 관리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자신의 임지로 향하는 여정과 그로 인한 감상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¹⁾ 이후 사신단에 포함되어 외국으로의 사행(使行)의 여정을 담아내거나, 유배를 당하고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 등 여행 체험을 담아낸 다양한 경향의 가사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사행가사’와 ‘유배가사’를 별도의 양식으로 구분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여행을 모티프로 하여 작자의 여정을 중심으로 서술된 일련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기행가사’라는 상위 범주를 설정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관리가 아닌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처지에서, 단지 유람을 목적으로 떠난 작자가 자신의 여정과 여행지에서 느낀 소회를 중심으로 형상화한 기행가사 작품들도 등장하였다.

전남 장흥 출신 사대부인 위세직(魏世稷, 1655~1721)의 <금당별곡(金塘別曲)>은 작자가 고향 근처의 섬인 금당도와 만화도로 유람을 다녀온 후에 그 여정과 감상을 토대로 창작된 가사 작품이다. 작품이 처음 소개될 때부터 작자 소개에 다소의 혼선이 있었으나, 작자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작자를 확정할 수 있었다. <금당별곡>을 소개한 초기의 연구에서 작품에 표기된 기록을 근거로 작자를 위세보(魏世寶, 1669~1707)로 적시했으나,²⁾ 얼마 후에 위세보의 문집인 『석병집(石屏集)』에 “삼종형이 금당별곡을 지었다(三從兄作金塘別曲)”라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작자를 위세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다.³⁾ 이

1) 주지하듯이 문학사에서 최초의 기행가사로 평가되는 백광홍(白光弘, 1522~1556)의 <관서별곡>(1552)은 작자가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여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이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정철(鄭澈, 1536~1593)의 <관동별곡>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할지인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하는 과정과 감상을 그려낸 기행가사 작품이다.

2) 이종출, 「위세보의 <금당별곡>고」, 『국어국문학』 제35·36권, 국어국문학회, 1967. <금당별곡>은 표제가 탈락된 채 8편의 가사와 9수로 구성된 위백규의 연시조 <농가>가 수록된 필사본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문헌에 수록된 첫 작품인 <금당별곡>에 ‘삼족당(三足堂)’이라는 작자 소개가 있어, 이종출은 이를 근거로 <금당별곡>의 작자를 삼족당 위세보라 언급하면서 문헌의 명칭도 ‘삼족당가첩’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문헌의 성격과 수록 작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김석희에 의해, 이 문헌은 개인 가집이 아닌 장흥 위씨 문중에 전해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현재는 『위문가첩(魏門歌帖)』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통용되고 있다. 김석희, 『『위문가첩』을 통해 본 조선 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화문화사, 1995, 309~341면 참조.

3) 이종출, 「위백규의 가사 <사회가>에 대하여」, 『사대논문집』 4,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1973, 32면. 삼족당 위세보의 문집인 『석병집』에 수록된 한시 <차삼종형세직금당운(次三從兄世稷金塘韻)>에 부기된 기록이라고 한다. 후손들에 의해 목활자로 출간된 『삼족당유고(三足堂遺稿)』(1936)에도 같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금당별곡>과 관련된 별도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논하기로 하였다.

후 <금당별곡>을 포함한 일련의 작품군들을 장흥 혹은 전남 지역에서 창작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지역 문학의 관점에서 다른 연구 성과들이 적지 않게 제출되었다.⁴⁾ 이와 함께 작품에 형상화된 ‘선유(仙遊)체험’의 관점에서 <관동별곡>과의 비교를 진행한 연구가 있으며,⁵⁾ <금당별곡>과 같은 문헌에 수록된 가사 <천풍가(天風歌)>와의 비교를 통해 작품의 성격과 기행가사로서의 면모를 논한 논문들⁶⁾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기행가사로서 <금당별곡>의 특징과 지역 문학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개별 작품론으로서의 연구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작품이 수록된 『위문가첩』의 본문 탐색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초기의 학회지에 소개된 2차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 하지만 표기나 문헌의 훼손 정도에 따라 작품의 일부 구절에서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도 정확한 해독이 이뤄지지 않은 구절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작품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원전에 대한 검토 없이 2차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취한다면, <금당별곡>에 대한 작품론을 펼치기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작품론을 펼치면서, 2종의 이본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원문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또한 <금당별곡>의 작자인 위세적이 장흥 위씨 가문의 일원으로 문인으로 활동했다고 파악되지만, 여전히 작자의 삶이나 활동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4) 류연석, 「전남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화연구』 제5권,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4.; 김성기, 「장흥지역의 가사문학」,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학회, 1995.; 박수진,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가치 -작품 현황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제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고성혜, 「가사의 장소성 연구 -호남가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등.

5) 박일용, 「<금당별곡>에 그려진 선유체험의 양상과 그 의미 -<관동별곡>에 나타난 선유체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6) 이지영, 「기행가사 <금당별곡>과 <천풍가>의 대비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39집, 한국언어학회, 1997.; 박수진, 「장흥지역 기행가사의 공간인식과 문화양상」, 『은지논총』 제23집, 은지학회, 2009.

7) 작품이 수록된 문헌을 토대로 한 김석희의 연구 성과를 제외하고, 그동안 <금당별곡>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주로 이종출에 의해 소개된 2차 자료(『위세보의 <금당별곡>고』, 438~441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문집이나 관련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당별곡〉에 대한 작품론을 전개하고, 이와 연관된 작가 의식을 논하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위세보의 문집인 『삼족당유고(三足堂遺稿)』(1936)에 〈금당별곡〉의 작자인 위세직에 대해 논한 한시 작품들이 발견되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작가 의식의 면모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위문가첩』에 수록된 〈금당별곡〉을 중심으로 2종의 이본을 비교하여 원문 탐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원문 검토를 거친 이후 작품의 면모를 파악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구절들에 대해 적절한 해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작품 세계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로 하겠다. 또한 새롭게 확인된 위세보의 한시를 통해, 〈금당별곡〉의 작가 위세직에 대한 작가 의식과 더불어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따져보도록 하겠다.

2. 〈금당별곡〉의 원문 탐색과 작품 세계

필사본(筆寫本) 형태로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가사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독해에 장애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견된다. 가장 빈번한 사례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문헌의 결락이나 훼손으로 인해, 일부 구절의 의미 파악과 함께 작품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아울러 작품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들이 현재의 용어들과 다른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필사자의 필사 습관 때문에 일부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작품 해독의 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문헌이 전승되면서 작품이 수록된 문헌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혹은 한 면 이상이 문헌에서 분리되어 전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작품들은 별도의 이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작품의 온전한 형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문헌의 결락이 존재하거나 혹은 필사 습관으로 인해 원문을 정확하게 해독하기 힘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작품론을 전개하기에 뚜렷한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구절의 해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원문의 파악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과 작품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금당별곡〉 작품에서도 문헌의 부분적인 훼손과 함께

일부 구절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원문 해독의 어려움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작품 전체를 온전하게 다루면서 분석하는 작품론을 전개하기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기존 연구들에서 해독이 가능한 내용들을 위주로 작품을 인용하면서, <금당별곡>의 여정과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작품 인용에 있어 『위문가첩』에 수록된 원문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선행 연구들에서 인용 작품의 일부 표기나 표현의 모호함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⁸⁾ 여기에서는 현전하는 2종의 이본을 비교하여 원문 탐색을 진행하면서, 작품 세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문 탐색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작품 표기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당별곡>은 장흥에 은거하며 지내던 화자가 고향 인근의 섬인 ‘금당도’와 ‘만화도’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사의 서두가 다소 상투적인 어구로 시작되지만, 또한 화자 자신이 관직 진출이 아닌 자연에 뜻을 두고 오랫동안 은거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화자는 자연에 거처하면서 옛사람들의 시를 읽으며 소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팔선(八仙)’을 언급하면서, 화자 자신도 이번 여행을 통해 그러한 ‘선유(仙遊)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을 제시

8) <금당별곡>이 수록된 『위문가첩』의 복사본은 김석희 선생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었으며, 원문을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인용한 작품의 표기나 내용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현재 <금당별곡>의 이본은 2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필사본인 『위문가첩』에 수록된 작품이 저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른 한 종의 이본은 장흥 위씨 문중에서 후손들이 나누어 보기 위해서 기해(己亥, 1959) 12월에 발행한 문헌(가첩 자회가)으로, 여기에는 위백규의 가사 <자회가>와 <권학가> 그리고 <금당별곡> 등 3작품이 수록되었다. 『자회가』(가첩)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자회가(自悔歌)』, 청구기호 : 811.2-자146ㄴ)하고 있으며, ‘부 금당별곡(附金塘別曲)’이란 제목 아래 ‘삼족당(三足堂) 위공(魏公) 세보(世寶) 소저(所著)’라 표기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이 가첩을 출간할 당시에 후손들은 <금당별곡>을 위세보가 창작한 작품으로 여겼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열람한 결과 <금당별곡>의 후반에 4면 정도의 결락이 확인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중출이 소개한 2차 자료를 참고로 하여 원문 탐색을 진행하였다.

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일신(一身)의 병이 드어 만사(萬事)에 흥황(興況) 업서 / 죽림(林) 김푼 곳의 원학(猿鶴)을 벗슬 삼마 / 십년(十年) 서창(書窓)의 고인시(古人詩) 뿐이로다 / 일생(一生) 호입(好入) 명산곡(名山曲)을 우연(偶然)히 기리 읊퍼 / 만고(萬古) 시호(詩豪)을 녁녀(歷歷)히 혀여 본이 / 팔선(八仙) 천재(千載) 후(後)여 니을 이 괴 닌계요 / 강산(江山) 풍월(風月)아 한가(閑暇)흔 지 여러 해여니 / 분분(紛紛) 세사 나도 슬여 풍월 주인 디야 햏야 / 명구(名區) 선경(仙境) 반공이 얼른 초목이 만발이라 / 산화 찍은 곳이 흥미(興味)도 하고 만타¹⁰⁾

작품의 초두에서 화자는 ‘일신의 병’이 들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질병이 아닌 자연을 즐기고 사랑함이 너무도 지나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과 같다는 의미의 ‘천석고황(泉石膏肓)’을 달리 이르는 표현이다. 즉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사’에 흥미로움(興況)을 느끼지 못했음을 전제하고 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원숭이와 학’¹¹⁾ 등의 동물들을 벗삼아 지내면서, 지난 10년 동안 ‘서재(書窓)’에서 ‘옛사람들의 시’를 읽으면서 지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화자는 이백의 한시 <여산요(廬山謠)>의 “평생을 명산에 들어가 노니는 것을 좋아한다네(一生好入名山遊)”라는 구절을 우연히 접하고 읊게 되면서, 만고에 잘 유명한 시인(詩豪)들을 ‘역력히 헤여보’았노라고 자부할 정도로 시문에 탐닉했음을 드러내고 있다.¹²⁾

더욱이 천 년 전에 존재했던 중국 ‘팔선(八仙)’¹³⁾들의 뒤를 이을 존재가 화자

10) 『위문가첩』에는 <금당별곡>을 비롯한 가사 작품들이 4음보 한 행을 두 줄의 귀결체로 수록하고 있으며, 상단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하단에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문은 한글 위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부 단어에는 글자 옆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어 작품 해독과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문가첩』에 수록된 작품을 인용 자료로 삼았으며, 작품에 병기된 한자는 괄호 안에 표기했다. 『자회가』(가첩) 수록본은 표기만 현대어에 적합하도록 바뀌었기에,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아울러 작품 전문을 인용하여 작품론을 펼치기로 하겠다.

11) ‘원학(猿鶴)’은 『고문진보』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서 “혜초 장막이 비니 밤에는 학이 원망하고, 산 사람이 떠남을 새벽에 원숭이가 놀랐다네(蕙帳空兮夜鶴怨, 山人去兮曉猿驚.)”에서 취했으며, 흔히 은자(隱者)가 자연에서 벗하며 함께 지내는 대상을 가리키는 상투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12) 작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한시 구절이나 전고(典故) 등을 통해, 화자가 오랫동안 옛사람들의 시를 읽으면서 문학적 능력을 함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 ‘팔선(八仙)’은 도교의 깊은 이치를 체득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종리권(鍾離權)·여동빈(呂洞賓)·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자연에 은거하여 지내면서 ‘강산풍월’로 여러 해 동안 한가하게 지냈다고 언급하면서, ‘분분한 세사’가 싫어 ‘풍월주인’으로 자처했음을 토로하고 있다. 나아가 평소 ‘명구(名區) 선경(仙境)’으로 표현된 장소를 찾아갈 생각을 하였으며, 그러한 장소가 ‘반공에 어른’거릴 정도로 인해 유람을 떠날 흥미가 생겼음을 드러내고 있다.¹⁴⁾ 작품의 앞부분에서 충분히 제시되어 있듯이, 화자는 자신이 ‘팔선(八仙)’으로 알려진 옛 신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났음을 밝히고, 명승지이자 ‘선경(仙境)’에 대한 뜻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학 우회 이 세에 만나보이 / 황금단(黃金丹) 지어내어 삼동계(參同契) 못자 햏야 / 송노(松醪)을 밧타내어 일엽편주(一葉片舟) 실어두고 / 말니(萬里) 연파(烟波)의 임의(任意)로 썻워내이 / 엽서(葉嶼) 화암(花巖)은 망안(望眼)의 가경(佳景) | 요 / 백빈(白蘋) 홍노(紅蓼)는 단도(短棹)의 향기(香氣)로다 / 산형(山形)도 도견이와 슈세(水勢)도 ㄱ이 엇다 / 처강(淸江) 백구(白鷗)야 문노라 가는 길이 / 삼신산(三神山) 너린 활기 이리로서 어디 멀며 / 도원도(桃園島) 지는 곳은 언의 물로 느리느고 / 계도(桂棹)을 흘리 저어 가는 대로 노하스라 / 년회(沿回) 고면(顧眄)햏이 곳곳지 지점(指点)홀 제 / 상운(祥雲) 일편(一片)이 해천(海天)의 검어 이서 / 온자햏 학의 소리 십이(十里)이 들니거늘 / 난도(蘭棹)을 썰리 저어 느드시 들어가니 / 부용화(芙蓉花) 뛰운 거동 반공(半空)의 소사느너 / 올 저 듯던 그 솔의 잇 썻해서 나실세라

이어지는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한데, 아마도 학을 탄 신선들을 만나고자 유람을 준비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¹⁶⁾ ‘황금단’은 먹으면 죽지 않고 신선이 되어 오래 산다는 단약(丹藥)이며, ‘삼동계(參同契)’는 도가(道家)의 수련 방

장과로(張果老)·한상자(韓湘子)·이철괴(李鐵拐)·조국구(曹國舅)·남채화(藍采和)·하선고(何仙姑) 등 여덟 신선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대목은 화자가 금당도로 유람을 떠나는 것이 천 년 전에 존재했던 ‘팔선’의 뒤를 이어 ‘선유(仙遊) 체험’을 하려고 의도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 14) 『위문가첩』 수록본에는 “명구(名區) 선경(仙境) 반공의 얼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자회가』(가첩)에는 “명구(名區) 선경(仙境)에 반세(半歲)를 늙어 있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 15) 『위문가첩』 수록본에는 “썻목이 만밭이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회가』(가첩)에는 다소 확장되어 “얏산 아침 비에 불빛이 빼어나니”라는 구절이 보인다.
- 16) 『자회가』(가첩)에는 이 대목이 “학우(鶴友)희 선자(仙子)들은 이 때에 만나보야”라고 표기되어 있다.

법이 적힌 문헌을 가리킨다. 따라서 화자가 신선들을 만나고자 하는 까닭을 황금단을 만드는 방법과 참동계에 관해 묻고자 함을 밝히는 내용이다. ‘송료(松醪)’는 송진을 주재료로 만든 술을 일컫는데, 화자는 잘 익은 술을 걸러 유람하는 동안 마시기 위해 ‘일엽편주’에 신도록 했다. 화자는 이제 만리에 걸쳐 안개 자욱한 수면에 배를 마음껏 띄우고, 주변의 ‘나뭇잎처럼 보이는 섬(葉嶼)’들과 꽃이 핀 해안의 언덕들을 바라보며¹⁷⁾ ‘가경(佳境)’임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마도 화자 일행이 탄 배가 목적지인 금당도에 가까워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해안가에 핀 ‘흰 마름(白蘋)’과 ‘붉은 여뀌꽃(紅蓼)’의 향기가 마치 배에서 젖는 ‘짧은 노(短棹)’에게까지 스며드는 듯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마주 보이는 섬의 산형(山形)뿐만 아니라, 흘러내리는 물의 기세도 좋다고 덧붙이고 있다. 강처럼 맑은 물 위를 나르는 ‘갈매기(白鷗)’에게 화자가 가는 길이 삼신산에서 활개처럼 뻗어 내린 곳과 얼마나 멀며, ‘무릉도원과 같은 섬(桃園島)’에서 떨어진 꽃잎이 어떤 물로 흘러내리는지를 묻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찾고자 하는 곳이 ‘삼신산(三神山)’이나 ‘도원도(桃園島)’로 표현될 정도의 이상향임을 드러내고 있다.

‘계도(桂棹)’¹⁸⁾를 저어 배가 가는 대로 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뱃전에 부딪혀 흐르는 물을 돌아보니 멀리서 섬 곳곳의 모습이 화자의 시선에 포착되었다.¹⁹⁾ 문득 섬에서 ‘상서로운 구름(祥雲)’ 한 조각이 바다와 하늘을 검게 물들이며, 온화한 학 울음소리가 심리 밖에서 들리는 듯하여 목적지에 가까워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화자 일행은 ‘목란으로 만든 노(蘭棹)’를 빨리 저어 마치 배가 나는 듯이 목적지인 금당도의 포구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눈 앞에 보이는 바위가 마치 ‘연꽃(芙蓉花)’이 공중에 솟아난 듯하여, 배를 타고 올 때 들던 학 울음소리가 이 섬에서 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17) 『자화가』(가첩)에는 ‘엽서(葉嶼) 화담(花潭)’으로 표기하였으나, 『위문가첩』 수록본을 검토한 결과 ‘엽서(葉嶼) 화암(花巖)’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8) ‘계도(桂棹)’라는 단어는 소식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으로,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사용하는 화려한 배를 일컫는다.

19) 『자화가』(가첩)에는 ‘연회고면(連回顧睇)’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문가첩』 수록본에는 한자가 ‘연회고면(沿回顧睇)’으로 확인된다. ‘연회(沿回)’는 배가 앞으로 감에 따라 흐르는 물이 뱃전에 부딪혀 돌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평사(平沙)의 닷슬 주고 칩하(彩霞)을 헛쳐 보니 / 밋 알에 물 우히 그 스이 천 척(千尺)이라 / 기상(氣象)이 만천(萬千)이라 파릉(巴陵)이 이 갓든가 / 대 곶은 그 일흠 이제 보니 과연하다 / 연하(烟霞)와 흠기 느려 석노(石路)로 올라가니 / 경화(瓊花) 노초(瑤草)는 곳곳의 깎퍼 익고 / 옥던 금강은 골골이 널려 있다 / 한제 금갱 언 의닷 잇 싸해 움계시여 / 와황보천(媧皇補天) 어이하야 해천(海天)에 썰어진고 / 조코도 물근 그상 ㅁ즘도 ㅁ줄시고 / 석작년화(石作蓮花) 운작(雲作)되는 이런 디를 이음이르 / 아미산(峨嵋山) 적벽강(赤壁江)의 추경(秋景) 춘상(春賞) 이러흔겨 / 적송즈(赤松子) 안기상(安期生)은 우화등선(羽化登仙) 예와 흥가

작품에서 화자가 도착한 섬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목적지가 금당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 일행은 ‘백사장(平沙)’에 닷을 내리고, 배에서 내리기 전에 아름답게 펼쳐진 ‘노을(彩霞)’을 바라보았다. 화자의 시선에는 산의 아래와 바다 사이가 마치 천 척이나 되는 아득한 거리처럼 느껴졌다고 하겠다. 섬에서 느껴지는 기상(氣象)이 대단하여 마치 동정호가 내려다보이는 ‘파릉(巴陵)’²⁰과 같은 경치를 연출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화자는 섬과 바다를 띠(帶)처럼 가른 풍경이 ‘금당(金塘)’이라는 섬의 이름을 적절히 표현했다고 생각했다²¹. 배에서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던 화자는 비로소 노을을 배경으로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배에서 내려 돌길을 따라 섬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보석처럼 빛나는 꽃과 아름다움 풀²²들이 섬의 곳곳에 무더기를 지어 피어 있으며, 넓게 펼쳐진 가운데 우뚝하게 솟은 바위는 마치 ‘옥으로 꾸민 궁전(玉殿)’에 ‘금경(金莖)’²³처럼 골짜기마다 널려 있다고 표현하였다. 화자는 이러한

20) ‘파릉(巴陵)’은 중국 호남성의 악양(岳陽)의 옛 지명으로, 범중엄(989~1052)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내가 보건대 파릉의 뛰어난 형상은 동정호 그 하나에 있다(子觀夫巴陵勝狀，在洞庭一湖)”라는 구절이 있어 동정호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21) 『위문가첩』 수록본에는 “대 <은 그 일흠 이제 보니 과연하다”라는 구절이, 『자회가』(가첩)에는 “대제(大哉)라 그 이름이 이제 보니 과연(果然)하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다.

22) 『위문가첩』 수록본의 ‘경화(瓊花) 노초(瑤草)’라는 표현이, 『자회가』(가첩)에 ‘기화(琪花) 요초(瑤草)’로 표기되어 있다.

23) ‘금경(金莖)’은 중국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신선이 되고자 하여, 궁 안에 구리로 선인장 모양을 만들어 이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승로반(承露盤)을 일컫는다. 『위문가첩』 수록본에는 ‘옥전 금경’에 한자 표기가 없으나, 『자회가』(가첩)에는 ‘옥전(玉殿)’과 ‘금경(金莖)’의 한자 표기가 병기되어 있다. 화자가 처음 밟은 섬을 ‘옥전’과 ‘금경’ 등으로 표현한 것 역시 이상향으로서 금당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라 이해된다.

경치에 압도되어 한나라 황제의 금경²⁴⁾이 언제 이곳으로 옮겨졌는지 반문할 정도라고 하겠다. 이어지는 구절의 ‘외황보천(媯皇補天)’²⁵⁾은 전설적 인물인 여와(女媧)가 사방으로 찢어진 하늘을 바느질로 기워 세상을 다시 세웠다는 고사를 인용한 표현인데, 금당도에서 바라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경치를 이처럼 형용한 것이다.

이처럼 이상향의 경치를 간직한 금당도의 맑은 기상이 모든 조건을 잘 갖추었음을 토로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백의 시구를 인용해 섬의 풍광을 소개한 내용이라고 서술하였다. “돌은 연꽃이 되었고, 구름은 누대가 되었는데(石作蓮花雲作臺)”라는 표현은 중국의 서악인 화산(華山)의 경치를 형상화한 이백의 〈서악운대가(西嶽雲臺歌)〉에서 인용하였는데, 이 구절이 마치 금당도의 풍경을 묘사한 듯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명승지로 잘 알려진 중국의 아미산(峨嵋山)과 적벽강(赤壁江)의 ‘추경(秋景)’과 ‘봄 풍경(春賞)’에 비견될 정도라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뛰어난 경치를 지닌 금당도를 일컬어 신선으로 알려진 적송자(赤松子)와 안기생(安期生)이 이곳으로 와서 ‘우화등선(羽化登仙)’했던 장소로 여겨질 정도라고 표현하였다.²⁶⁾ 화자는 떠나기 전부터 명구(名區)와仙境(仙境)의 유람을 떠올렸으며, 마침내 배를 타고 떠나 도착한 금당도에서 이러한 경치를 볼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반산(半山)의 흘러 쉬여 제일봉(第一峰) 올라가이 / 일진(一陣) 선풍(仙風)이 낭액(兩腋)의 빙기 부러 / 표표(飄飄) 쌍매(雙袂)에 심신(心身)이 청녕(淸冷) 혼니 / 봉구(蓬丘) 소식(消息)을 거의 안니 드을소냐 / 왕궐(王子) 요딤(瑤臺)에 벽도(碧桃)만 늘거 잇고 / 낭옹(浪翁) 석구(石臼)의 칙하(彩霞)만 좀겨 잇다 / 석각(石角)을 노피 베고海景(海景)을 다시 보이 / 표묘(漂渺) 혼 동명(東溟) 상(上)의 만첩(萬疊) 강산(江山) 여기저기 / 창망(滄茫) 혼 운희(雲海) 가(間)의 널편(一片) 어쥬(漁舟) 오락가락 / 안겨(眼底)의 모든 경(景)이 칙칙(色色)이 자랑(幸)이 / 건곤(乾坤)의 이 조화(造化)을 닐라셔 아러 보리

24) 『위문가첩』 수록본에는 한자 표기 없이 ‘한제 금경’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자회가』(가첩)의 작품에는 ‘한제(漢帝) 금경(金莖)’이라고 한자가 첨부되어 있다.

25) ‘외황(媯皇)’은 여와를 달리 부르는 호칭이며, 『회남자(淮南子)』에서 의거한 고사로 ‘여와보천(女媧補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6) ‘예와 흥가’라는 구절이 『자회가』(가첩)에는 ‘이러한가’로 표기되어 있다.

화자는 산의 중간 부근에서 잠시 쉬다가 금당도의 ‘제일봉(第一峰)’에 올랐는데, 때마침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을 ‘선풍(仙風)’이라 표현하며 두 겨드랑이 사이로 불어오는 듯하다고 하였다. 양 소맷자락을 날리며 가벼이 부는 바람에 ‘심신(心身)’이 맑고 서늘하다고 서술하면서, 화자는 ‘봉구(蓬丘)’로 표현된 삼신산 중의 하나인 봉래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토로하였다. 금당도의 경치를 접하면서 화자는 이미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으며, 구체적으로 옛 신선들의 이름과 행적을 호출하면서 ‘선유(仙遊) 체험’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 다음 구절 역시 이러한 화자의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왕자(王子) 요대(瑤臺)’²⁷⁾란 중국 주나라의 왕자진(王子晉)이 머물던 옥으로 만든 누대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벽도(碧桃)’는 신선들이 즐겨 먹는다는 전설상의 과일로, 신선이 되어 왕자진이 떠난 요대에 파란 복숭아만 남아 늙어간다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화자 자신이 신선으로서 옛 주인이 떠난 요대에 도착하여, 그 벽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어지는 구절 역시 ‘낭옹(浪翁)’이 사용하던 돌절구만이 남아 ‘노을(彩霞)’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²⁸⁾ 화자는 잠시 빼죽 튀어나온 ‘석각(石角)’을 베개 삼아 높이 베고 바다의 풍경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보이는 동쪽 바다에 다양한 섬들이 겹쳐 ‘만첩 강산’이 여기저기에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아득한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 척의 고깃배가 화자의 시선에 들어왔다. 눈 아래 펼쳐진 모든 풍경이 온갖 색을 자랑하는 듯하였으며, 그러한 경치는 화자에게 마치 ‘건곤(乾坤)의 조화(造化)’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화자는 금당도에서 마주친 풍광을 마치 신선이 되어 즐기고 있는 듯하다는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성관(星冠) 월패(月佩)을 쏘애나 보자 햅야 / 송근(松根)을 놉피 베고 낮잠을 잠깐 드이 / 청동(靑童)이 나를 잡어 봉내산(蓬萊山) 건너 뵈니 / 소노뉴(松醪酒) ㄱ득 부

27) ‘왕자진(王子晉)’은 『열선전(列仙傳)』에 등장하는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서, 후에 신선이 되었다는 인물이다. ‘요대(瑤臺)’는 옥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누대를 가리키며, 흔히 신선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28) 소식의 <무장서산(武昌西山)>이라는 시의 “낭옹이 취했던 곳 아직도 남아있어 / 잔도 없이 돌절구에서 물을 떠서 마셨다네(浪翁醉處今尚在, 石臼杯飲無樽疊)”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낭옹(浪翁)’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 원결(元結)을 가리킨다.

여 니 잡고 저 권홀 제 / 장생(長生)계 못썬 말은 반(半)튼 채 못 들어 / 구고(九臯)
 일성(一聲)의 선몽(仙夢)을 놀나 썬이 / 장연이 일공흔 덕 호월(皓月)이 철니(千里)로
 다 / 화정의 멀파하고 수로(水路)도 무변(無邊)하다

‘선유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화자가 꿈을 꾸며 신선을 만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관(星冠)’은 선인(仙人)들이 착용한다는 별 모양의 모자이고, ‘월패(月佩)’는 관리들 복장의 좌우로 늘어뜨려 차는 달 모양의 장식품을 일컫는다.²⁹⁾ 따라서 작품에서 ‘성관’과 ‘월패’는 모두 신선들의 옷차림을 의미하며, 현실에서 만나지 못한 선인(仙人)들을 꿈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땅 위로 돌출한 ‘송근(松根)’을 베고 낮잠에 든 화자는 꿈에서 자신을 붙들고 봉래산으로 이끄는 ‘청동(靑童)’을 따라갔다고 하였다. 화자는 유람을 떠나면서 배에 실었던 ‘송료주’를 꺼내 청동과 더불어 서로 권하며 마셨으며,³⁰⁾ 신선이 되어 ‘장생(長生)’의 계책을 반도 채 듣지 못했는데 문득 ‘높은 언덕(九臯)’³¹⁾에서 들리는 소리에 ‘선몽(仙夢)’을 놀라 깨었다고 토로하였다.

화자가 꿈속에서 만난 청동(靑童)은 선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를 따라 삼신산의 하나인 봉래산으로 가서 신선이 되어 ‘오래 살 수 있는 계책’을 듣고자 하였다. 하지만 높은 언덕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해, 놀라서 ‘선몽’을 깨어서 ‘장생의 계책’을 채 반도 들을 수 없었음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다음 구절 역시 〈약양루기〉에서 취한 표현으로, 이미 길게 노을이 공중에 펼쳐지고 밝은 달이 멀리까지 비추는 정경을 묘사하는 내용이다.³²⁾ 화자의 시선에

29) 허난설헌의 〈유선사(遊仙詞)〉 연작 가운데 “별 모양의 관과 노을빛 노리게 차고 위의도 좋아 / 삼신산의 선관이 옥황계 아뢰기 위해 들어갈 때(星冠霞佩好威儀, 三島仙官入奏時)”라는 구절에서, ‘성관(星冠)’과 ‘하패(霞佩)’가 바로 신선들의 복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하패(霞佩)’ 대신 ‘월패(月佩)’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겠다.

3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회가』(가첩)에는 “송요주(松酒) 가득 부어 나 잡고 저 권홀 제”의 다음 구절부터 4면에 걸쳐 결락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결락 부분의 원문 검토는 부득이하게 이종출이 소개한 2차 인쇄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31) 『시경』 「소아(小雅)」의 작품인 ‘학명(鶴鳴)’에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온 들에 퍼지네(鶴鳴于九臯, 聲聞于野)”라는 구절이 있는데, 비록 ‘학의 울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에서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범중엄의 〈약양루기〉 중 약양루에서 바라본 경치를 묘사하는, “혹은 길게 퍼진 안개가 공중에 가득하고, 밝은 달은 천리를 비춘다(或長煙一空, 皓月千里)”라는 구절에서 취한 표현이다.

는 ‘노을빛에 물든 물가(霞汀)’와 ‘잔잔한 파도(滅波)’가 포착되었고,³³⁾ 배를 타고 떠나갈 ‘수로(水路)’는 가장자리가 없는 듯 광대하게 펼쳐졌다. 화자는 금당도에 도착하여 제일봉에 올라 주변의 경관을 선경(仙境)처럼 묘사하고, 나아가 자신의 꿈을 ‘선몽(仙夢)’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금당도의 유람을 마친 화자는 다시 배를 타고 새로운 여행지인 만화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애장(牙檣)을 다시 씌며 만화도(萬花島)로 내려간이 / 산음(山陰) 설야(雪夜)의 자유(子猷)의 호흥(豪興)이다 / 석강(石江) 추월(秋月)의 백야(白也)의 시정(詩情)이라 / 건넌 경(景)도 도견이와 밤 경(景)이 더욱 도타 / 사변(沙邊)의 자던 구로(鷗鷺) 도성(潮聲)의 절로 썩여 / 습가(三江) 연(烟)월의 흥기 놀자 우는짜 / 슈저(水底)의 노던 샹이(湘娥) 요슬(瑤瑟)을 썩어 툄 제 / 남풍(南風) 오현(五絃)의 성음(聖音)을 전(傳)하느 듯 / 괴예(扣柁) 승류(乘流) 하야 흥(興) 겨워 머물물 제 / 서(西)산의 들이 지고 동곡(東谷)의 날이 나이 / 금파(金波)을 탕양(蕩漾)하야 만강(滿江)이 능난(凌亂)홀 제 / 연저(烟渚)의 띄을 띄고 낙화(落花)을 쓸아드이 / 새배 안개 촌 이슬이 초으(草衣)에 저슬세라

‘상아 돛대(牙檣)’³⁴⁾를 다시 꾸며 다음 목적지인 만화도(萬花島)를 향해 떠나는 화자의 모습이 이어진다. 내용으로 보아 만화도는 금당도와 가까운 곳의 섬이며, 아울러 ‘꽃섬(花島)’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⁵⁾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화자 일행은 섬으로 바로 상륙하지 않은 채, 배에서 섬의 풍광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만화도의 풍경을 다양한 고사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음설야(山陰雪夜)’라는 표현은 중국 진나라의 왕희지와 연관된 고사를 지니고 있는데, ‘산음(山蔭)’에서 살던

33) 『위문가첩』의 복사본에는 해당 한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종출이 소개한 작품에는 한자와 함께 “화정(霞汀)의 멸파(滅波) 하고”라고 표기되어 있다.

34) ‘아장(牙檣)’이란 표현은 두보의 시 <추흥팔수(秋興八首)> 가운데 제6수의 “비단 돛줄과 상아 돛대에는 흰 갈매기 날아오르네(錦纜牙檣起白鷗)”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35) 작품에서 화자는 장흥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금당도에 도착한 후, 섬에서 내려 제일봉에 올라갔다 다시 배로 돌아왔다. 그리고 만화도로 향해 출발하여 섬 부근에서 정박하여,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여정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장흥에서 금당도를 거쳐 만화도에 이르는 여정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금당도 주변에 3개의 섬으로 이뤄진 ‘꽃섬’이 있는데, 섬의 크기에 따라 각각 대화도(大花島)·중화도(中花島)·소화도(小花島) 등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금당별곡>에서 가리키는 ‘만화도(萬花島)’는 ‘꽃섬’이라고 지칭되는 이들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왕희지가 눈이 내리는 밤을 함께 즐기려고 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를 만나지 않고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배 위에서 만화도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저 혼자 즐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왕희지의 흥취에 비겨 서술하고 있다고 하겠다.³⁶⁾

이어지는 구절에 등장하는 ‘석강추월(石江秋月)’이라는 표현도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이 술에 취해 채석강(彩石江)의 달그림자를 보고 건지려다가 빠졌다는 내용을 떠올리게 하며, 그러한 경지가 바로 시인으로서 ‘이백의 시정(詩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³⁷⁾ 작품에서 이러한 고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배에서 바라본 섬의 풍경이 화자의 흥취와 더불어 시상을 떠올릴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금당도를 거치면서 마주쳤던 경치도 좋았지만,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만화도의 밤 풍경이 더욱 좋음을 표현한 것이다. 백사장의 가장자리에서 자던 ‘갈매기와 해오라기(鷗鷺)’들도 밀물과 썰물이 나드는 조수(潮水) 소리에 깨어, 바다로 흘러드는 ‘세 줄기 강(三江)’의 안개 자욱한 달빛 아래에서 함께 놀자고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자연의 소리로 가득한 상황을 화자는 물속에서 놀던 상아(湘娥)가 현악기(瑤瑟)를 연주할 때, 이에 화답하듯 순임금이 연주하는 오현금 소리로 서로 상대에게 ‘신성한 음악’을 전하는 듯하다고 표현하였다.³⁸⁾ ‘고예승류(扣柁乘流)’라는 표현은 시가에 흔히 등장하는데, 배에 탄 화자가 뱃전을 두드리면서 물결을 타고 마음대로 떠다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밤을 지새우고 배에서 새벽을 맞은 화자의 흥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서서히 서산(西山)으로 달이 지고 동쪽 계곡이 환하게 밝으면서, 바다에 ‘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36) ‘자유(子猷)’는 명필로 잘 알려진 왕희지의 자(字)이다. 왕희지는 밤에 폭설이 내리자, 친한 벗인 대규(戴逵)가 생각나서 밤새도록 배를 타고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가 만나지 않고 되돌아왔다고 한다.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물으니, 왕희지는 “내가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온 것인데, 어찌 꼭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는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자유’의 호흥(豪興)란 바로 이러한 왕희지의 호탕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37) 이 구절은 두보가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이라는 시에서 “이백은 시로서 당할 사람이 없다(白也詩無敵)”라고 표현한 것에서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38) ‘상아(湘娥)’는 중국 고대의 성군인 순(舜)임금의 두 부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키는 데, 이들은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다가 상수(湘水)에 빠져 죽어 ‘상수의 산’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달리 ‘상군(湘君)’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온정균의 시 <요슬월(瑤瑟怨)>은 독수공방하는 여성들이 밤을 지새우며 현악기를 타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상아’의 타는 악기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짝하여, ‘남풍(南風) 오현(五絃)’은 순임금이 태평성대를 기리면서 오현금을 연주하며 불렀다는 <남풍시(南風詩)>를 의미한다.

듯한 어지러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제 화자 일행은 ‘안개 자욱한 물가(烟渚)’에 닳을 내려 배를 매고, ‘낙화(落花)’를 따라 섬으로 오르게 되었다. 만화도의 새벽안개와 찬 이슬이 화자 일행의 ‘초의(草衣)’를 적실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토로하였다. 금당도를 출발하여 만화도에 도착한 후, 배에서 밤을 지낸 화자 일행은 새벽에서야 비로소 섬을 돌아보는 일정을 시작하였다.

산하(山下) 벽도(碧桃)는 옛 봄을 그쳐 썩여 / 훗(後) 주인(主人)을 기다리고 / 곡니(谷裡) 유란(幽蘭)은 바람 구테 향기(香氣)로 / 날리는 닳 알외는 듯 / 해객(海客)은 무심(無心)하여 백구(白鷗)을 쫓아주어 / 선인(仙人)은 어디 가고 황학(黃鶴)만 남안논고 / 백화향(百花香) 훗든 곳의 옥소(玉簫)을 비키 부이 / 벽해(碧海) 청천(青天)의 백학(白鶴)이 느라든다 / 어와 황홀하여 내 아니 신선(神仙)인가 / 일벽주(一盃酒)즈로 부어 취(醉)토록 머근 후의 / 삼화루 비겨 안저 물 밧털 굼버보이 / 월계(越溪)의 싯던 비단 어너 물의 밀러오며 / 낙포(洛浦)의 노턴 선녀(仙女) 어이하여 잠긴게뇨 / 수식(水色)도 괴이(奇異)하다 다시곰 살펴보이 / 호산(湖山)의 띄온 고시 물아레 빗출서라 / ㄱ 업슨 이 경개(景概)을 일폭(一幅)의 움겨내여 / 서시(徐市)와 안고 뵈여 대동전(大同殿)의 보내던들 / 오농의 그린 가릉(嘉陵) 이 산수(山水)와 엇덜런고 / 풍광(風光)도 혼이 업고 의사(意思)도 그지 업다

화자는 만화도의 풍광도 역시 ‘선경(仙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산 아래에서 ‘벽도(碧桃)’가 선인들이 노닐던 옛 봄을 연상시키며 ‘훗 주인’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다.³⁹⁾ 아울러 계곡 깊은 곳에서 ‘유란(幽蘭)’의 향기가 바람에 날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듯하다고 서술하였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온 ‘해객(海客)’인 화자는 흰 갈매기를 따라 섬에 올랐는데, 과거에 이곳에서 놀던 ‘선인(仙人)’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노닐던 ‘황학(黃鶴)’만 남았다고 표현하였다.⁴⁰⁾ 화자가 온갖 꽃의 향이 질게 풍기는 곳에서 피리(玉簫)를 부니, 푸른 바다의 하늘에서부터 백학(白鶴)이 날아들어 마치 자신이 신선인 듯이 여겼다고 하겠다.

39) ‘훗 주인’이란 옛 선인들이 떠나고 나서 이곳에 새로 주인이 된 선인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화자가 주인임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0) 중국 당나라 시인 최호(崔顥)의 시 <황학루(黃鶴樓)>의 첫 구절 “옛사람 황학 타고 이미 떠나고 / 이 땅에는 부질없이 황학루만 남았구나.(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라는 구절을 변용해서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작품에서 ‘황학만 남았다고 표현한 것 역시 황학이 화자를 기다렸음은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된다.

화자는 가지고 있던 술을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신 후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삼화루에 올라 비스듬히 앉아 굽어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바다 풍경조차 천하의 미인인 서시(西施)가 비단을 씻던 물과 낙포(洛浦)의 선녀(仙女)가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였다.⁴¹⁾ 바닷물의 색도 기이하게 여겨져 다시 살펴보았더니, ‘호산(湖山)’으로 표현된 건너편 물가의 산에 핀 꽃들이 물 아래로 비쳤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자가 바라보는 현재의 풍경을 그림으로 옮겨낼 수 있다면, 서불(徐市)과 안기생(安期生)⁴²⁾에게 보여줘 불사약을 구해 신선이 되기를 희망했던 진시황이 머물던 대동전(大同殿)으로 보내고 싶을 정도라고 토로하였다. 아울러 그 그림은 다섯 마리 용이 머무는 가릉(嘉陵)⁴³⁾을 그린 그림과 화자가 보는 이 산수의 풍경과 비교할 만하다고 토로하였다. 그리하여 바라보는 풍광도 뛰어나지만, 그에 대한 화자의 생각도 끝없이 솟아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인도를사 이 내 몸이 선화(仙化)의 연분(緣分) 업셔 / 진심(盡心)이 미진(未盡) 하야
 향관(鄕關)을 싱각(醒)하야 / 강산(江山)의 후기(後期) 두고 백구(白鷗)와 락서(盟誓)
 하야 / 허쥬(虛舟)을 다시 출라 오던 길노 츠자오이 / 못다 본 나쁜 경(景)을 글귀에
 영량(領量) 하이 / 도끼러(倒騎驢) 의호구(衣狐裘)는 천만고(千萬古)의 과연(果然) 하
 다 / 산창(山窓)을 다시 뒹고 섬켜히 누어시이 / 말리(萬里) 강천(江天)의 몽환(夢魂)
 만 즈자 잇다 / 엇지타 갑 업슨 강산(江山) 풍월(風月)을 절로 가게 하느고

화자는 금당도와 만화도를 돌아보던 내내 주변의 뛰어난 풍광에 마치 자신이 신선이 된 듯하다고 토로했지만, 유람이 끝나갈 무렵 비로소 자신이 ‘선화(仙

41) 월계(越溪)는 중국의 대표적인 미인으로 평가되는 서시가 빨래하던 지명이며, ‘낙포선녀(洛浦仙女)’는 낙포에 빠져 죽어서 낙수(洛水)의 신이 되었다는 복희씨(伏羲氏)의 딸인 복비(宓妃)를 가리킨다.

42) 작품에서는 ‘서시(徐市)’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는 진시황의 사자로 활약했던 ‘서불(徐市)’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안기’는 ‘안기생’으로 여겨지며, 서불과 안기생은 모두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위문가첩』에 수록된 〈천풍가〉는 장흥의 천관산을 유람한 내용의 기행가사인데, 여기에서도 ‘서불’을 서시(徐市)로 표기하고 있다. 두 작품의 표기에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은데, 두 작품의 표현과 내용의 비교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43) 구체적인 지역은 미상이다. 명칭으로 보아 ‘가릉(嘉陵)’은 왕이나 왕비의 묘에 붙는 묘호(墓號)라고 하겠는데, 아마도 그 지형이 다섯 마리 용이 보호하는 명당의 형제라서 ‘오룡(五龍)’의 그린 가릉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化)의 연분(緣分)’이 없음을 애달파하고 있다. 화자는 유람하는 동안 마음을 다 하여 즐기고자 하였으나, 여정을 마칠 무렵에는 오히려 미진(未盡)함을 느끼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다.⁴⁴⁾ 금당도와 만화도를 훑날 다시 찾으리라고 갈매기와 맹세를 하고, 화자는 유람을 마친 ‘허주(虛舟)’로 돌아오면서 미처 못 본 풍경을 글로 ‘헤아려 기록(領量)’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⁴⁵⁾ 이어지는 구절에서 중국 송나라의 시인인 반랑(潘闐)과 관련된 ‘도기려(倒騎驢)’⁴⁶⁾와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景公)에서 비롯된 ‘의호구(衣狐裘)’⁴⁷⁾라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⁴⁸⁾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에만 집중하는 화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유람을 마치고 고향의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산창(山窓)’을 닫고 싱겁게 누워서, 만리 밖에 있는 금당도와 만화도의 자연 풍광을 ‘몽혼(夢魂)’으로라도 자주 보고 싶다고 토로하였다. 아울러 작품의 마지막 구절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살 수 없는 ‘강산풍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절로 지나간다는 아쉬움을 표출하며 끝맺고 있다. 유람하는 과정에서는 금당도와 만화도의 뛰어난 경치를 통해 그곳이 ‘명구(名區)仙境(仙境)’임을 체감하면서 마치 화자가 신선이 된 듯하다고 느꼈지만, 여행을 마칠 무렵에는 자신이 ‘신선이 될 수 있는 연분’조차 없음을 토로하였다. 나아가 향리의 ‘산창’을 닫고 앞으로 세상에 나갈 뜻이 없음을 피력하면서, 고향에 머물며 은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44) ‘향관(鄉關)’은 고향의 관문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 곧 고향을 달리 이르는 표현이다.

4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4면의 결락에 이어, 새로운 면에 “못다 본 남은 경(景)을 글 귀에 영량(領量)하고”라는 구절부터 4행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작품의 마지막 행인 “엇지타갑 업스 강산(江山) 풍월(風月)을 절로 가게 흐느고”라는 구절이 『자화가』(가첩)에는 생략되어 있다.

46) ‘도기려(倒騎驢)’는 중국 송나라의 시인 반랑이 시를 짓는 것에 집중해서, 나귀를 거꾸로 탄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은 고사이다.

47) ‘의호구(衣狐裘)’는 중국 춘추시대의 제나라 경공이 겨울철에 여우 가죽으로 만든 ‘호백구(狐白裘)’를 입고 있어, 다른 사람의 추위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유래한 고사이다.

48) 『자화가』(가첩)에는 “도기려(倒騎驢) 지호구(支狐裘)”로 표기되어 있다.

3. 작자의 삶과 문인으로서의 의식 지향

기행가사로서 〈금당별곡〉은 작자가 고향 인근의 섬인 금당도와 만화도로 유람을 다녀온 후, 1박 2일 동안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흥을 토대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현재 금당도의 행정구역은 완도군에 속하지만, 과거에는 장흥도호부의 부속 섬이었다. 작품의 화자가 금당도를 거쳐 도착한 만화도는 현재 같은 이름의 지명이 없어 구체적인 위치는 미상이나, 아마도 금당도 가까이에 있는 섬(꽃섬)으로 추정된다. 장흥 출신의 작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장소로 두 섬을 선택하여 유람을 떠났으며, 그 여정과 감상 등을 토대로 기행가사 〈금당별곡〉이 창작되었다고 하겠다. 작품에서 화자가 자연을 좋아하여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고 향리에 은거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특히 10년 동안 뛰어난 시인들의 작품을 상세히 살펴봤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작품의 곳곳에서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직접 인용하거나 혹은 변용하여 작품의 구절로 활용하는 등 문인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가사 〈금당별곡〉은 학계에 작품이 처음 소개되면서 『위문가첩』에 기록된 작가 표기에 따라 위세보로 소개되었지만,⁴⁹⁾ 위세보의 문집인 『석병집』의 기록을 토대로 위세보의 삼종형(三從兄)인 위세직(魏世稷)이 창작한 작품으로 확인되었다.⁵⁰⁾ 하지만 〈금당별곡〉을 제외한 위세직의 문집 등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작자의 생애와 작가 의식을 검토하는 것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세보의 문집인 『삼족당유고(三足堂遺稿)』⁵¹⁾에 위세직의 시에 차운(次韻)한 한시 작품이 확인되어,⁵²⁾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문인으로서

49) 이종출, 「위세보의 〈금당별곡〉고」 참조.

50) 이종출, 「위백규의 가사 〈자화가〉에 대하여」, 32면.

51) 순천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삼족당유고(三足堂遺稿)』(청구기호 : 범.우.고 810.819 위53)는 1936년 후손들에 의해 목활자본으로 출간된 위세보의 문집이다. 현재 이 자료는 PDF 파일로 열람할 수 있어, 문집의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52) 『삼족당유고』에는 위세직의 시에 차운한 작품 5제 9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작품은 〈차저곡삼종형세직벽상운(次楮谷三從兄世稷壁上韻)〉 2수, 〈차삼종형저곡벽상운(次三從兄楮谷壁上韻)〉, 〈차삼종형세직금당운(次三從兄世稷金塘韻)〉 4수, 〈차삼종형저곡운(次三從兄楮谷韻)〉, 〈차저곡벽상운(次楮谷壁上韻)〉 등이다. 위세직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원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위세보의 작품들을 통해 위세직의 자(字) 또는 호(號)가 ‘저곡(楮谷)’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세직의 면모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삼죽당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위세직의 생활상과 의식을 살핌으로써, 문인이자 가사 작가로서 그의 면모를 논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금당별곡>과 관련된 작품으로, 전체 4수로 이뤄진 위세직의 한시 <차삼종형세직금당운(次三從兄世稷金塘韻)>⁵³⁾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⁵⁴⁾ 제목에서 이 한시가 위세보의 삼종형 위세직이 지은 ‘금당’이라는 작품에 차운(次韻)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위세직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작품으로 미루어 위세직은 금당도와 만화도를 유람한 후 가사 <금당별곡>과 별도로 ‘금당도’와 관련된 내용의 한시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금당도 유람에 대한 위세직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면모가 가사 <금당별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三疊金莖望裏危	세 겹의 구리 기둥(金莖)을 바라보니 위태롭고
萬千奇外更多奇	수많은 기이함 외에 다시 기이함 많다네
聞歌始覺三山枉	노래 들으며 비로소 삼신산의 헛됨을 깨달았으니
莫笑秦皇信不疑	진시황이 진실로 의심하지 않았음을 비웃지 말게나.

蓬海茫茫倚棹危	봉래산으로 건너는 바다 아득하여 노에 의지하여 위태롭고
仙源歷歷夢中奇	신선 세계의 근원은 또렷하여 꿈속에서 기이하다네
覺來況得長生計	하물며 장생의 계책을 깨달았는데
詠入三山筆不疑	삼신산 들어감을 읊조리니 붓으로 쓴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네.(其二)

제1수의 첫 행에서는 금당도에 도착한 후 해안가에 한무제의 금경(金莖)처럼 우뚝 솟은 바위를 묘사하고 있다.⁵⁵⁾ 막 도착한 금당도의 풍경을 접하면서, 기이함이 거듭되는 모습에 신기함을 드러내는 2행의 내용이 이어진다. 3행과 4행에

53) 『삼죽당유고』 권지일, ‘칠언절구’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4수는 모두 ‘위(危, 1행)’와 ‘기(奇, 2행)’ 그리고 ‘의(疑, 4행)’의 운자로 구성되어 있다.

54) 이종철은 위세보의 문집 『석병집』에 수록된 이 작품에 “삼종형이 금당별곡은 지었다(三從兄作金塘別曲)”라는 내용이 제목과 함께 병기되어 있다고 했으나, 『삼죽당가첩』에는 이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55) <금당별곡>에는 “옥던 금강은 골골이 널러 있다 / 한계 금경 언의닷 잇 싸해 움계시여”로 표현되고 있다.

서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헛됨을 깨닫게 되었지만, 진시황이 끝까지 삼신산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금당도의 이러한 기이한 풍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아마도 위세직의 원시에서도 ‘금경(金莖)’이나 ‘삼신산’ 그리고 ‘진시황’ 등에 관한 내용으로 형상화했기에, 위세보는 그 작품에 차운하면서 자신의 감상을 덧붙여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제2수의 1행과 2행에서 화자는 금당도로 향하는 과정을 봉래산으로 건너가는 것에 비유하였고, ‘선원(仙源)’을 꿈속에서 기이하게 경험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금당별곡〉의 작품에도 형상화된 내용이며, 아마도 지금은 전하지 않는 위세직의 한시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꿈속에서 ‘장생의 계책’을 듣고자 했으며, 그러한 내용을 위세직은 차운의 대상 작품에서도 다뤘을 것이라 짐작된다.⁵⁶⁾ 더욱이 위세직은 그러한 경험을 한시로 창작하였고, 그 내용은 본 위세보는 차운시에서 그 내용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路窮滄海戲吁危	길이 푸른 바다에 막혔으니 위태로움을 탄식하고
象外仙峯露數奇	형상 밖의 선계 봉우리는 이슬이 자주 기이하다네
若使秦皇看此境	만약 진시황으로 하여금 이 경치를 보게 한다면
尋真何必有無疑	진짜를 찾았음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其三)

天外金塘此去危	하늘 밖의 금당도는 이제 떠나면 위태로우니
有聞無見未云奇	듣기만 하고 볼 수 없어 기이함을 말하지 못한다네
聽君歌曲兼詩語	그대의 가곡과 시어를 들으니
十島三山望更疑	열 개의 섬과 삼신삼 바라봄을 다시 의심한다네.(其四)

제3수의 1행과 2행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금당도의 형세를 위태로움으로 서술하면서, 그곳을 ‘선잠(仙岑)’으로 묘사하여 한무제가 이슬을 받기 위해 만들었다는 ‘금경(金莖)’의 이미지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 특히 3행과 4행에서는 삼신산을 찾기 위해 애썼던 진시황을 소환하여, 금당도야말로 그곳에

56) 〈금당별곡〉에서 “송근(松根)을 넘피 베고 낮잠을 잠깐 드이 / 청동(靑童)이 나를 잡어 봉내산(蓬萊山) 건너 밖← / 소노주(松醪酒) ㄷ(醒) 부여 니 잡고 저 권홀 제 / 장생(長生)계 못쓴 말을 반(半)튼 채 못 들어 / 구고(九臯) 일성(一磬)의 선몽(仙夢)을 놀나 썩이”라는 구절로 형상화되어 있다.

다름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형상화는 위세직의 원시에 차운한 내용이기며, 원작의 주요 내용 또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마지막 제4수는 금당도의 유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를 형상화한 원작의 내용에 차운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람을 마치고 돌아온 후 위세직은 다시 금당도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겼을 터이고, 그에 차운한 위세보 역시 ‘듣기만 하고 볼 수 없는’ 유람의 경험을 기이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3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가곡(歌曲)과 시어(詩語)’로 표현된 작품은 각각 위세직의 가사 <금당별곡>과 차운시의 대상인 금당도 유람을 다룬 한시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열 개의 섬을 뜻하는 ‘십도(十島)’와 신선들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은 금당도를 비유한 표현으로, 위세직이 가사와 한시를 통해 금당도의 유람을 ‘선유 체험’으로 인식했음을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가사 <금당별곡>에서 화자는 평소 관리가 되어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에는 뜻이 없고, ‘세사(世事)’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다.⁵⁷⁾ 다만 작자 자신을 향리에 머물며 살아가는 처사(處士)로서 자임하고 있는데,⁵⁸⁾ 이는 위세보가 위세직의 평소 생활하는 면모를 그려낸 차운시 <차삼중형저곡벽상운(次三從兄楮谷壁上韻)>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하겠다.⁵⁹⁾

草廬風不庇 초가집은 바람을 가려주지 못하지만
蕭灑本無籬 맑고 깨끗하여 본래 울타리도 없네

57) <금당별곡>의 “분분(紛紛) 세사 나도 슬며 풍월 주인 터야 향야”라는 구절을 참조할 수 있다.

58) 『삼죽당유고』 권지일, 오언절구에 수록된 2수로 이뤄진 <차저곡삼중형제직벽상운(次楮谷三從兄世稷壁上韻)>의 내용을 통해서, 처사로 살아가는 위세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매사를 처리함에 무사하여 한가하니 / 맑은 바람에 현악기 하나 연주한다네 / 갈매기가 모래사장 위에 서있는데 /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어찌 근심하리.(處事閒無事, 淸風弄一絲, 白鷗沙上立, 何患莫吾知) 산 그림자 처마와 이어져 푸르고 / 밀물 소리 집으로 흘러드네 / 달빛 속에 어부의 노래 부르니 / 나아갈 길에는 작은 배가 있다네.(山影連簷碧, 潮聲入戶流, 月裏漁歌發, 前程有小舟. 其二)”

59) 『삼죽당유고』 권지일, ‘오언사율’ 항목 참조. 이 작품을 포함해 4수(3제)의 시 제목에 ‘벽상운(壁上韻)’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위세직은 자신이 쓴 시를 집의 벽에 붙여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세보가 차운한 이 작품에 대한 위세직이 쓴 원시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世事箒瓢飲	세상일은 도시락과 표주박의 물 마시는 것일 뿐
閒情一小詩	한가로운 정취로 짧은 시 한 수 짓는다네
沙邊如問友	모랫가에서 친구를 묻거든
鷗外更云誰	갈매기 외에 또 누구를 말하리오
莫歎年齡晚	나이가 많음을 탄식하지 말게나
江湖歲月遲	강호에서는 세월이 더디게 간다네.

1행과 2행에서는 바람을 가려주지 못하는 초가집과 울타리조차 없는 누추한 처소에서 살아가는 시적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도시락과 표주박(箒瓢)’을 지니면서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그저 시를 짓는 상대의 일상을 형상화하고 있다.⁶⁰⁾ 5행과 6행에서는 자연에 은거하면서 백사장의 갈매기를 벗 삼아 지내는 상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비록 관직이나 부귀와 같은 세속적 기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늙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세월의 흐름이 더디게 지나가고 있다는 화자의 감상이 덧붙여져 있다. 가난하지만 세속적 관심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위세직의 면모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⁶¹⁾

아울러 위세보는 벽 위에 붙여진 그의 시를 접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생활을 안타깝게 여기는 작품도 남기고 있다.⁶²⁾ 자연에 은거하며 생활하는 동안 ‘고인시(古人詩)’를 읊으면서 문인으로 생활했기에 적지 않은 한시를 남겼고, 위세보는 평소에 접했던 그의 작품에 차운한 작품을 남겼다고 하겠다. 위세직의

60) 이러한 삶의 태도는 『논어』의 「옹야」편에서, 공자가 제자 안연(顏淵)의 청빈한 삶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용한 ‘단표누항(箒瓢陋巷)’이란 표현과 상통한다고 이해된다.

61) 또 다른 작품인 <차삼종형저곡운(次三從兄楮谷韻)>에서는 어부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살아가는 위세직의 면모가 소개되고 있다. “강과 하늘의 비 개인 빛같은 진정 여렵뜻하고 / 아름답고 어여쁨이 많아서 지는 해를 본다네 / 흰머리로 오랫동안 째했던 어부들과 밤새우니 / 오랜 세월 한가로운 정취의 낚시터 하나 있다네.(江天霽色正依微, 佳賞多憐見落暉, 白頭長伴漁人宿, 千古閒情一釣磯)”, 『삼죽당유고』 권지일(칠언절구).

62) “시를 보면서 일찍이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 일상에 필요한 네 가지 일은 또한 분수 밖의 기이함이라 말한다네 / 걷기만 하니 지친 말의 고달픔과 관계없고 / 몸소 농사지으니 어찌 종이 게으른지 아는가를 묻겠는가 / 근심 많아 집으로 빨리 돌아감을 본받지 말고 / 문 열고 도리어 거울 보고 세월이 더디름 서글피 여긴다네 / 손석탄 머리엔 조수가 밀려드는데 / 말 없고 듣는 것 없으니 이 마음을 기억하리.(看詩未嘗不鳴噫, 四事亦云分外奇, 徒步非關羸馬倦, 躬耕安問懶奴知, 多憂莫效歸家速, 開閣還憐覽鏡遲, 蓀石灘頭潮水落, 無言無聽是心期)’, 『삼죽당유고』 권지일(칠언사율).

이러한 면모가 그로 하여금 금당도로 유람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고, 더욱이 그가 ‘명구 승경’을 찾아 선유 체험을 목적으로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문집 등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가사 <금당별곡>과 위세보가 남긴 ‘차운시’를 통해서 이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가사 작가이자 문인으로서 위세직의 위상을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맺음말

가사 <금당별곡>은 1박 2일 동안 금당도와 만화도를 유람한 화자의 여정과 감상을 중심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평소 관직에 진출하는 등의 세속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고인시’에서 접했던 ‘명구 선경’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섬으로의 여행을 떠났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금당도에 도착하여 마치 자신이 신선이 된 듯, 그곳의 승경을 탐색하는 화자의 모습을 작품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뱃머리를 돌려 인근의 섬인 만화도에 도착한 후, 배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에야 섬에 내려 또 다른 승경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정을 마친 화자는 다시 그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유람 과정에서와 달리 자신이 ‘선화(仙化)의 연분’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비록 화자의 고향과 멀지 않다고 하더라도, 섬으로의 여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계획이었을 것이다. 배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지만, 도착한 섬들에서 화자는 그곳의 뛰어난 풍광을 ‘선경(仙境)’으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목적지인 금당도와 만화도를 유람하는 동안 느꼈던 감상을 다양한 고사와 옛 시인들의 시구를 활용하여 표출하고 있으며, 그 여정을 가사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품의 곳곳에서 화자의 ‘선유 체험’을 토로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유람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화자는 금당도의 여행 경험을 추억하며 지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감상을 덧붙여 작품으로 남긴 것이 바로 가사 <금당별곡>이라고 하겠다.

처음 작품이 소개되었을 때 〈금당별곡〉의 작가에 대해 오해가 있었으나, 관련 기록이 발견되어 위세직이 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쳤다. 작품의 곳곳에서 문인으로서 작자의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지만, 위세직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집이나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세보의 문집 『삼죽당유고』에 위세직의 한시에 차운한 작품들이 발견되어, 그의 생활상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장흥에서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이들의 문집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세직의 삶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다만 위세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위문가첩(魏門歌帖)』(필사본).

『자회가(自悔歌)』(가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족당유고(三足堂遺稿)』(1936, 목활자본, 순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김석희, 「『위문가첩』을 통해 본 조선 후기 호남 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김성기, 「장흥지역의 가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239~258쪽.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작품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119~140쪽.

UCI : G704-001062.2011..27.011

김용철, 「기행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가사 문학 연구』, 태학사, 1996.

김용찬, 「장흥에서 뱃길로 금당도와 만화도를 유람하다, <금당별곡>」, 『오늘의 가사 문학』 42, 한국가사문학관, 2024, 38~51쪽.

류연석, 「전남 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화연구』 제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4, 121~185쪽.

박수진, 「장흥지역 기행가사의 공간인식과 문화양상」, 『온지논총』 제23집, 온지학회, 2009, 201~231쪽.

UCI : G704-001782.2009..23.011

_____,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일용, 「<금당별곡>에 그려진 선유 체험 양상과 그 의미 -<관동별곡>에 나타난 선유 체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기행가사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제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169~203쪽.

UCI : G704-001066.2015..69.019

이종출, 「위세보의 <금당별곡>고」, 『국어국문학』 제34·35권, 국어국문학회, 1967, 435~446쪽.

_____, 「위백규의 가사 <자회가>에 대하여」, 『사대논문집』 4,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1973, 31~41쪽.

이지영, 「기행가사 <금당별곡>과 <천풍가>의 대비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39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385~405쪽.

| Abstract |

The Oeuvres and Consciousness Orientation of <Geumdangbyeolgok>

Kim, Yong-chan
Suncheon Univ. Prof.

The work that shapes the journey of travel and the author's appreciation in the Gasa genre is called Giheang Gasa. In the early days, mainly the officials recorded the process of going to the forest as they took office, but gradually the works that recorded the process of travel by individuals in free situations began to be created. <Geumdangbyeolgok> is a Giheang Gasa created by the author based on his journey and appreciation after traveling to the island of Geumdangdo and Manhwado near his hometown. In the early study that introduced the work, there was a mistake in introducing the author, but it was confirmed that Gasa were created by Wi Sejik because a record was found to reveal the author.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Geumdangbyeolgok> as a Giheang Gasa could be revealed to some extent, but the research results dealing with this work are still insufficient. In addi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cited works through secondary data, without a thorough review of the text containing the works. In this article, we conducted a review of the works and a search for the original texts, which were once included in the Wimungacheop and another book. Through this process, it was possible to provide a basis for dealing with the original text of the work in detail, and to discuss the work world of <Geumdangbyeolgok> in abundance.

As for the life and activities of Wi Sejik, the author of <Geumdangbyeolgok>, it was not fully revealed because related materials such as literary works were not transmitted. However, I was able to confirm the works related to Chinese poetry in the Samjokdangyugo as the literary works of Wi Sebo. Although the work created by Wi Sejik could not be identified, it was used as a clue to detect his literary activities and artist consciousness. Based on this work, the original text search and the world of the work were described focusing on the works contained in the Wimungacheop.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newly discovered Chinese poems of Wi Sebo, I introduced Wi Sejik's consciousness as a writer and his aspect as a literary man as a writer

of <Geumdangbyeolgok>.

Key words : Geumdangbyeolgok, Wi Sejik, Giheang Gasa, Geumdangdo, Manhwado, Samjokdangyugo etc.